진실에 오르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kwangju.co.kr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제19703호 1판 2014년 3월 24일 월요일 (음력 2월 24일)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일반인 종사자만 배불린 장애인 재활사업장 ▶6
아시아 문화원류-태국 아카족 ▶13
류현진 5이닝 무실점 시즌 첫 승 ▶14

광양 매화동산에 활짝 핀 봄 남도의 봄, 광양은 하얀 매화로 뒤덮였다. 제17회 광양국제매화축제가 열린 23일 광양시 다압면 섬진마을을 찾은 상춘객들이 매화의 절경을 만끽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 한·중, 내일 한·미·일 정상회담

朴대통령 헤이그 핵안보정상회담 참석 출국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독일 순방을 위해 5박7일간의 일정으로 23일 출국했다.

이번 순방은 취임 이후 7번째이자 지난 1월 중순 인도와 스위스 국빈방문에 이은 올해 두 번째 국외 방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대통령전용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사진〉

박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3일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별도로 시 주석과 만남으로써 북핵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어 24~25일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개막 선도 연설을 통해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국제 핵안보체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한다. 루터 총리와는 한-네덜란드 워킹 홀리데이 양해각서도 체결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오는 25일 헤이그에서 미국이 중재하는 형태의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마주앉는 자리다. 북핵 문제가 회담의 주제지만 일본의 과거사 도발로 장기 경색된 한일 정상이 관계개선의 여지를 탐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어지는 26일부터 박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해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을 시찰하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투자유치 부진 산단 12곳중 2곳만 조성중

개청 10년 맞은 광양만권경제자유청 초라한 성적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청)이 24일로 개청 1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전남 동부권의 경제 심장과도 같은 광양만청의 성적표는 초라한 실정이다. 〈관련기사 2면〉

투자유치 실적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투 포트(양항)를 지향하는 광양항의 물동량은 인천항에도 뒤처질 처지에 놓였다. 산업단지 조성도 지지부진해 배후단지 활성화는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다.

23일 광양만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광양만권자유구역청내 5개 지구 12개 산업단지 가운데 율촌1산단(조성률 93%)과 해룡산단은 공사중에 있으며, 황금·세풍·율촌2산단은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사업자도 찾지 못하고 있고 특히 광양항 준설토 매립지에 조성될 율촌3산단은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산단이 들어서지 못하면서 산단 내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조성하는 배후단지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신대배후단지가 완료돼 분양중이지만 나머지 용강·신대 덕례·덕천·두우·성황배후단지는 모두 공사중이거나 사업자 공모중이다. 2020년까지 이들 사업들이 마무리될 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투자 실적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양만청은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46개 업체로부터 127억14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은 44곳에 42억2300만 달러에 불과하며, 실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더 줄어든다.

배후단지 조성 지지부진
광양항 물동량 정체
인천항에 뒤질 위기

광양만권의 지난 2012년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액은 1억2660만 달러였으나 실제 도착액(실현액)은 200만 달러, 2013년에는 1억1770만 달러가 신고됐지만 한국 계좌에 들어온 돈은 1890만 달러에 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석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여기에 최근 광양만권의 핵심시설인 광양항이 부산항은 물론 인천항에도 물동량에서 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량은 13만1000TEU로, 부산(13만7000TEU), 인천(13만8000TEU)에 뒤졌다. 전체 물동량도 광양항이 227만6000TEU로, 인천항(216만1000TEU)에 바짝 쫓기고 있다.

광양만청 관계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물리면서 침체기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0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는 외국인 투자유치 250억 달러, 매출액 130조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학교설립 60주년(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강운태 "광주 발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광주시장 공식 출마 선언
전국 광역단체장중 처음
완전 개방 시민경선 주장

강운태 광주시장은 23일 "광주 발전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강 시장의 재선 도전 선언은 전국 현역 광역단체장 중 처음이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 서구 쌍촌동 5·18 기념공원 대동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4년여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사즉생의 각오로 간절하고 당당하게 나간다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빛나는 도시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6·4 지방선거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향한 대장정에 중단없이 박차를 가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이냐를 가름하는 갈림길"이라며 "민생중심, 민주회복,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정치가 광주에서 활짝 피도록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23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 기념공원 대동광장에서 출마 선언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선 방법과 관련, "중앙당의 합리적인 결정이면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원하는 시민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 시민경선이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민선 5기 성과로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제2순환도로 소송 승소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새 야구장 건립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도심 재개발 방식 조성 등을 꼽았다.

한편, 강 시장은 25일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강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시장 직무가 정지되고 오형국 행정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